

일한 검도기술용어의 대비와 특징

가또 준이치

일어요약

本研究は、韓国剣道の技術用語の特徴を日本のそれと対比させながら明らかにするところにある。今日、日本国内には多種多様の剣道指導書が存在する。これは韓国も同様である。しかし、唯一の違いは、日本の場合は全日本剣道連盟が編集した『幼少年剣道指導要領』が存在し、それがすべての剣道指導の基礎、基本となり、これによって国内では剣道の技術指導が行われているのに対して、韓国では基本となる指導書が存在し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背景故に、韓国ではある技術用語も多用な表現が採られ、なかには日本の表現をそのまま直訳したために、韓国人には分かりにくいものもあつたりする。そこで、本稿では日本の技術用語と対比させながら、どのような表現がなされているのかを明らかにし、さらに、日本の技術用語が構成される特徴についても言及した。

結果として、日本の技術用語は名詞を重ねていきながら1つのタームを構成するという特徴があるのに対して、韓国の技術用語は、連体形を用いて描写的に表現する場合が多い。これは、韓国語の成語特徴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る。

なお、日本の技術用語は、打突部位名称と動作動詞の名詞化されたものとの組み合わせによって構成されるが、これも1) 打突部位名詞が重複する場合、2) 自分自身のある状態から技術が派生する場合、3) 動作動詞の名詞化されたものの後に打突部位名詞が付加された場合、4) 動作動詞の名詞化されたものが打突部位名詞の間に挿入された場合、以上の4つのケースに分けることができ、さらに3)は相手の動作に反応して行為する場合と自らが相手に仕掛けていく場合とに分けられる。

現在、IKF(International Kendo Federation)では、柔道と同様に日本語の技術用語が採択されており、世界各国では先の全日本剣道連盟が編集した要領を基に指導が行われている。しかし、韓国の場合、世界大会等の国際的な交流の場においてはIKFの規約を遵守しているが、韓国国内では独自の指導法や用語を用いて行っている現状がある。このダブルスタンダードは、世界第2位の実力を有する韓国剣道界においては、今後大きな問題と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

まずは、国内で統一的な指導ができるような要領の策定が急がれるところであるが、近未来的には、IKFに従った指導大系の見直しをする必要があるものと考えられる。

I. 머리말

근년, 한국 검도는 전반적으로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 2006년 12월에 대만에 서 세계검도대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서도 검도 종주국인 일본팀과 한국의 접전이 예상된다. 지난번 영국 대회의 결승전에서 대표전(代表戰)까지 간 것도 기억에 새롭다. 승부의 세계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만일 일본팀이 우승한다면 일본의 연패 기록도 갱신된다. 그러나 한국팀이 정점에 서게 되면 한국 검도가 세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력이 서로 근접하고 있음은 단지 국가대표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학생 차원의 실력도 그러하다. 해마다 일본 간토(關東)학생연맹과 한국학생연맹 사이에 교류전(交流戰)을 치루고 있는데, 근래의 3년 동안 일본은 1승5패로 한국 학생팀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간사이(關西) 학생연맹과 시합을 하여 한국 학생팀이 2승을 하였다.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한국이 우위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실력이 있다는 것과 검도의 기술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틀림없이 한국은 실력을 쌓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소수의 상위 층에 한하는 시합 기술이고, 일반 검도가의 기술이나 고단자(高段者)의 지도력을 보면 기술의 체계적인 정비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는 일본과 같은 통일적인 기술 지도의 체계가 없고, 지도자의 체계적인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인 학습에 학습지도요령이 있는 것과 같이 검도에도 검도지도요령이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에는 이것에 상응하는 지도요령이 없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한국 검도는 어떤 기술체계에 근거하여 연습하고 있는지, 즉 한국의 검도지도서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검도의 현재의 실력을 밝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당한 체계적인 지도요령도 없이 오늘의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거품일 가능성도 있다. IKF(International Kendo Federation)는 이미 GAISF(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 Federation)에 가맹 수속을 하고 있다. 즉 검도가 올림픽 경기의 한 종목으로 그 존재를 세계에 선보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국은 독자적인 경기 형태를 고수하고 독자적인 검도 문화를 강조하여, IKF의 규칙과는 일선을 긋는 이중표준(double standard)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지도체계와의 관계도 언급하면서, 한국 검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목적

본 연구는 통일적인 용어가 없는 한국 검도계(劍道界)에서 검도기술용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고찰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전일본검도연맹(全日本劍道聯盟)이 작성한 『유소년검도지도요령(幼少年劍道指導要領)』에 기초하여 검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 요령은 1985년에 초판을 발간한 이후, 조금씩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 11판이 발행되었다. 물론 기술내용은 일관하여 변화가 없다. 약20년 동안 일본 검도세계는 통일적인 기술체계로 지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검도는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I. 조사방법

본고에서 인용하는 한국 검도서는 다음과 같다. 이 책들은 최근에도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다.

- 가) 『검도입문(劍道入門)』, 서림스포츠편집부 역, 서림문화사, 1996년(초판은 1989년).
- 나) 『검도』, 용인대학교무도연구소 동양무예학과 교수공저, 홍경, 2004년.
- 다) 『유소년검도지도요령(幼少年劍道指導要領)』, 이호안 역, 1995년.

또한 한국에는 전일본검도연맹과 같이 IKF에 가맹한 단체에 대한검도회가 있는데, 이 협회는 『유소년검도지도요령』과 같은 지도서를 간행하지 않고, 이 협회의 홈페이지²⁾에서 기술용어 해설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내용은 수 정도 간단하여 협회의 기본 방침을 파악하기 어려운 까닭에 본 연구대상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먼저, 위에 열거한 세 책의 기술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용어의 표현은 어떠한지를 일본의 『유소년검도지도요령』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다음은 『유소년검도지도요령』의 구성이다.

- 1 基本動作(kihondousa)
 - 1-1 姿勢(shisei)
 - 1-2 構えと目付(kamae to metsuke)
 - 1-3 構え方と納め方(kamaekata to osamekata)
 - 1-4 足さばき(ashisabaki)
 - 1-5 素振り(suburi)
 - 1-6 掛け声(kakegoe)
 - 1-7 間合(maai)

- 1-8 基本の打ち方・突き方および受け方(kihon no utikata · tsukikata oyobi uke kata)
- 1-9 切り返し〈打ち返し〉(krikaeshi 〈utikaeshi〉)
- 1-10 体当たり(taiatari)
- 1-11 鑢ぜり合い(tubazeriai)
- 1-12 残心(zanshin)
- 2 対人的技能〈しかけていく技〉(taijintekiginou 〈shikaketeiku waza〉)
- 2-1 一本打ち(ipponuchi)
- 2-2 払い技(haraiwaza)
- 2-3 二・三段の技(ni · sandan no waza)
- 2-4 出ばな技(debanawaza)
- 2-5 引き技(hikiwaza)
- 2-6 かつぎ技(katsugiwaza)
- 2-7 捲き技(makiwaza)
- 2-9 片手技 (katatewaza)
- 2-8 上段技(joudanwaza)
- 3 対人的技能〈応じていく技〉(taijintekiginou 〈oujiteiku waza〉)
- 3-1 すり上げ技(suriagewaza)
- 3-2 返し技(kaeshiwaza)
- 3-3 打ち落とし技(utiotoshiwaza)
- 3-4 抜き技(nukiwaza)
- 3-5 応じ技 (oujiwaza)

IV. 고찰

여기서는 한국 검도지도서의 기술체계를 소개하고, 일본의 『유소년검도지도요령』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1. 『검도입문』에 보이는 기술체계와 용어

1-1.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일본의 검도 지도서를 번역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상으로 한 원본의 표기가 없다. 삽입한 사진도 모두 일본의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가) 준거(蹲踞)의 설명이 있다.
- 나) 심판기가 적색과 백색.

다) 선심의 설명이 있다.

라) 요판(腰板)의 설명이 있다.

1-2. 기술의 구성

이 책에서 기술체계는 기본기와 응용기로 구별된다. 그리고 응용기는 공격기와 응용기로 구분하고 있다.

가) 기본기

- 겨눔
- 발 움직임
- 공간혼자치기
- 치기, 찌르기
- 되돌려 치기

나) 응용기

a 공격기

- 헤쳐나가기
- 어깨메어치기
- 물러나며치기
- 2,3단의 기
- 한손치기
- 상단의 기
- 나오는 기

b 응용기

- 스쳐올려치기
- 받아떨어뜨려치기
- 돌려치기
- 비켜치기

1-3. 분석

이 지도서에서는 기술체계를 ‘기본기’와 ‘응용기’로 구분하며, ‘응용기’를 다시 “공격기”와 ‘응용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기’는 일본의 ‘基本動作 (kihondousa)’, ‘응용기’는 ‘对人的技能 (tajjintekiginou)’, ‘공격기’와 ‘응용기’는 ‘<しかけていく技> (shikaketeiku-waza)’와 ‘<応じていく技> (oujiteiku-waza)’에 대응된다.

2. 「검도」에 보이는 기술체계와 용어

1-1.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 검도가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명기한 점.
- 나) 개국부터 1950년까지의 검도 역사가를 상술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한국 검도서는 현대 검도가 일본 고유의 문화라는 점을 생략하고 있으며, 1790년에 간행한 『무예도보통지』로부터 1953년의 대한검도회 성립까지의 약160년간의 한국검도문화도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두 가지를 정면에서 서술한 것이 이 책이다.

2-2. 기술의 구성

이 책은 기술체계를 기본동작과 대인적 기능으로 구분하며, 다시 대인적 기능을 공격기와 응용기로 나누고 있다.

가) 기본동작

- 자연체
- 겨눔법
- 눈살핍
- 칼차기
- 발놀림
- 후리기 연습
- 공간치기
- 간격
- 연격
- 몸받음
- 코등이 싸움

나) 대인적기능

a 공격기

- 공격에 대한 상대의 변화에 대응한 타격
- 터어내 기술
- 2.3단의 연속기술
- 선제기술
- 물러나면서의 공격
- 메어치기술
- 감기기술
- 한손기술

- 상단기술
- b 응용기
 - 스쳐올려치기기술
 - 되돌려치기기술
 - 받아떨어뜨려치기기술
 - 피하면서 공격하기기술
 - 대응기술

2-3. 분석

이 책은 기술체계를 ‘기본동작’ 과 ‘대인적 기능’ 으로 구분하며, 또 ‘대인적 기능’ 을 ‘공격기’ 와 ‘응용기’ 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동작’ 은 일본의 ‘基本動作 (kihondousa)’, ‘대인적 기능’ 은 ‘对人的技能 (tajjintekiginou)’, ‘공격기’ 와 ‘응용기’ 는 ‘〈しかけていく技〉 (shikaketeiku-waza)’ 와 ‘〈応じていく技〉 (oujiteiku-waza)’ 에 대응된다.

3. 이호안 역 『유소년검도지도요령』에 보이는 기술체계와 용어

3-1.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역자인 이호안 씨가 전일본검도연맹의 허가³⁾를 받아 『유소년검도지도요령』 제4판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사진과 그림 등도 모두 전갑맹의 『유소년검도지도요령』 과 같다.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이호안 씨가 일본 검도기술을 어떻게 번역하였고, 또 어떤 표현을 사용하였는지의 문제이다.

3-2. 기술의 구성

이 책은 기술체계를 기본동작과 대인적 기능으로 구분하며, 다시 대인적 기능을 걸고 들어가는 기술과 받아 들어가는 기술로 나누고 있다.

가) 기본동작

- 자세
- 대세와 눈길
- 대세의 방법과 푸는(納刀)방법
- 발 놀림
- 후리기
- 기부림(발성)
- 간격
- 기본의 격법, 자범과 받는 법

- 연격
- 몸 부딪침
- 코등이 싸움
- 존심
- 나) 대인적 기능
 - a 걸고 들어가는 기술
 - 한번치기의 기술
 - 헤쳐 나가는 기술
 - 이, 삼단치기 기술(연속기술)
 - 나올 때 치기 기술
 - 몰려나면 치기 기술
 - 어깨 메어치기 기술
 - 감아 돌려치기 기술
 - 한손치기 기술
 - 상단의 기술
 - b 받아 들어가는 기술
 - 스쳐올려치기 기술
 - 되돌려치기 기술
 - 받아떨어뜨려치기 기술
 - 비켜치기 기술
 - 받아치기 기술

3-3. 분석

이 책에서 기술체계는 ‘기본동작’ 과 ‘대인적 기능’ 을 구분하며, ‘대인적 기능’ 은 ‘걸고 들어가는 기술’ 과 ‘받아 들어가는 기술’ 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기본동작’ 은 일본의 ‘基本動作 (kihondousa)’, ‘대인적 기능’ 은 ‘对人的技能 (taijintekiginou)’, ‘걸고 들어가는 기술’ 과 ‘받아 들어가는 기술’ 은 ‘〈しかけていく技〉 (shikaketeiku-waza)’ 와 ‘〈応じていく技〉 (oujiteiku-waza)’ 에 대응된다.

V. 결과

전일본검도연맹의 『유소년검도지도요령』 에 보이는 대인적 기능에서는 기술용어는 명사를 병렬하여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구별할 수 있다.

1) 타돌부위(打突部位)의 명사를 병렬하는 경우

이것은 대인적 기능의 ‘이,삼단의 기술(연속기)’로 보이는 것이다. 즉 손목→머리, 손목→머리→허리등을 연속적으로 공격할 경우에는 표기적으로 ‘小手面’, ‘小手面胴’라고 한다. 이 케이스는 타돌부위(打突部位)의 명사(DN)를 병렬시키는 것으로,

DN+D'N 혹은 DN+D'N+D"N

이라고 한다.

2)자기의 어떤 상태에서 기술이 나타나는 경우

대인적 기능의 ‘한손기’ ‘상단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명사가 의미하는 것은 한 손으로 치는 머리(片手面), 상단자세로 치는 손목(上段小手)이라는 것으로 기술을 행하는 사람의 상태, 자세를 나타내는 형태 명사(FN)에 타돌 부위의 명사가 부가되는 경우이다. 즉 이 경우,

FN+ DN

이라고 한다.

3)동작 동사의 명사에 타돌부위(打突部位)의 명사가 부가되는 경우

이것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a. 상대방의 죽도를 무너뜨리는 동작 내지는 자기의 동작이 상대보다 선행하는 경우

상대의 죽도를 털어내는 ‘払い技’, 감아올리고 감아뜨리는 ‘捲き技’라고 하는, 상대의 죽도에 대해 자기가 걸고 들어간 후에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이고 물러나면서 치는 ‘引き技’, 어깨에 맨 후에 치는 ‘かつぎ技’라고 하는, 자기의 동작이 상대에 대해 걸고 들어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털어낸다, 감아뜨린다, 물러난다, 어깨에 맨다, 등의 자기의 동작을 표하는 동작 동사를 명사화시킨 명사(MN)가 있고, 그 뒤에 공격하여 때리는 타돌부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부가시킨다. 즉,

MN+ DN

이라고 한다.

b. 상대의 공격동사에 대해 반응하는 경우

상대가 선제공격하여 오는 곳 내지는 나가는 순간을 자기가 치는 ‘出ばな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도 상대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를 명사화시킨 것에 타돌부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부가하여 상기 a와 같이 ‘MN+DN’이 되지만, 동작의 주체는 상대방에게 있으며, 자기가 상대의 죽도를 털어내는 행위와

물러나면서 치는 동작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경우와 구별하기 위하여 mN+ DN 이라고 한다.

4) 타돌부위 명사 사이에 동작 동사를 명사화하여 삽입시키는 경우

대인적인 기능의 받아 들어가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보이는 기술 명칭은 타돌부위의 두 명사 사이에 자기가 행하는 동작을 명사화하여 삽입시키는 형태가 있다. 즉 ‘面すり上げ小手’ 라는 표기는 상대가 얼굴(面)을 치고 오는 행위에 대해서 ‘すり上げる’ 라는 스쳐 올리는 동작으로 반응한 후에, 즉 상대의 손목(小手)을 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경우의 ‘面すり上げ小手(men suriage kote)’ ‘小手返し面(kote kaesi men)’ ‘胴打ち落とし面(dou utiotosi men)’ ‘面抜き胴(men nuki dou)’ 등 줄친 부분의 타돌 명칭은 상대가 치는 부위이고, 뒤에 있는 타돌 부위의 명칭은 자기가 공격하여 치는 부위를 나타낸다. 즉 이것들은 dN+ MN+ DN 이라고 한다.⁴⁴

이상과 같이 일본의 기술용어는 대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⁴⁵ 이것에 비해 한국 지도서는 기술용어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먼저 타돌 부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는 위치는 일본의 구성과 같으며, DN, dN의 구별도 같다. 따라서 1)의 ‘타돌부위(打突部位)의 명사가 병렬하는 경우’와 2)의 ‘자기의 어떤 상태에서 기술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 명칭은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일본과 같은 형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용법에 있어서는 동작 동사는 일본어과 같이 명사화시키지 않고 접속 조사를 수반하여 ‘하면서’ ‘하여’ ‘할 때에’ 란 형태로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 특유의 표현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김하수 씨등의 연구⁴⁶를 참조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본어에서는 명사가 갖는 잠재적인 동사성, 형용사가 명사 술어 전체에 비교적 용이하게 이어지지만, 한국어에서는 어렵다.⁴⁷

일본어에서는 구문(구체적으로는 문말명사문)이 갖는 의미가 비교적 용이하게 명사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어에서는 어렵다.⁴⁸

이러한 언어의 구조적인 차이가 검도의 기술 용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여겨진다.⁹

VI. 마지막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검도에서 기술 용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한국어 자체의 독특한 표현에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어의 ‘出ばな面 (debanamen)’ 을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出てくるところの面 (detekurutokorono-men)’ ‘出て来たところの面 (detekitatokorono-men)’ ‘出て来る瞬間の面 (detekurusyunkanno-men)’ 등, 이 상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먼저 조직적으로 통일적인 표현을 쓰고 그것을 정착화 시키면 복수의 표현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상태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상적인 언어라는 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검도도 이와 같다. 본고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한 한국판 『유소년검도지도요령』을 번역한 이호안 씨도 「역자의 말」에서 번역의 어려움을 “첫째 생활 문화와 동시에 검도화가 다르고, 둘째 같은 용어라도 뉘앙스(Nuance)의 일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였다.”¹⁰ 고 회술(懷述)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소재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일본에서 발생한 검도가 다른 국가로 전파될 때, 이 한국 검도계의 사례처럼 독자적인 용어가 만들어지면, 그 나라의 고유 언어문화와 혼합되어 여러 가지 표현이 만들어져서 결국 그것이 검도의 보급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도할 때에 통일적인 용어와 표현을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제검도연맹(International Kendo Federation; IKF)에서 사용하는 검도 용어와 국내 용어를 구별한다. 이 이중 표준은 국제시합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뿐만 아니라, 예컨대 한국의 젊은 검도가가 일본 혹은 다른 나라에서 검도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은 경우에 장애가 된다. 또한 반대로, 한국으로 가는 외국인 검도가가 같은 불리한 상황이 된다.

일본 국내에도 많은 지도서가 있다. 하지만 전일본검도연맹이 작성한 『유소년검도지도요령』과 같은 책이 존재한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유소년검도지도요령』은 일본 검도의 규범을 이룬다.

2006년 4월에는 GAISF에 재등록신청을 제출하여 심의한다. 검도가 올림픽종목이 되는 것도 가까운 시일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검도계의 산란한 상황은 문제이다. 기술 체계의 통일과 이중 표준을 고쳐 IKF의 기술 용어에 따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¹¹

마지막으로 2006년 3월 미국에서 개최한 제1회 WBC(World Baseball

Classic)에서, 2번이나 한국팀에 진 일본팀이 준결승전에서 겨우 한국을 이기고 결승전에서 쿠바를 격파하여 제1회 우승국이 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심판 문제나 추첨 방법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하며, 야구의 국제화를 위하여 예지를 모을 필요가 있겠다.

입장을 바꾸어, 검도도 그런 형태로 국제화시키면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검도 스타일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필자로서는 구도적(求道的)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무도인 검도가 야구처럼 세계화되는 것에 대하여 위화감을 느낀다. 검도가 올림픽 종목에 되어도 좋다. 그렇지만 다종다양한 검도 스타일이 세계에 존재하는 상황을 좋다고 해서는 안 된다. 야구와 같은 스포츠와 검도와 같은 무도는 나아갈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포츠와는 다른 부연방법(數術方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

1. 현재 북미 4국, 남미 5국, 아프리카 1국, 유럽 24국, 아시아 10국, 합계44국가 가맹하고 있다.
2.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umdo.org/index.php>.
3. 전일본검도연맹이 정확한 번역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였기에 한국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는다.
4. ‘打ち落とし技(utitosiwaza)’에서는 (払い技; haraiwaza)처럼 자기가 걸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しかけていく技 (shikaketeiku-waza)’에 분류된다.
5. 일본의 명칭에서도 ‘攻めて面 (semete-men)’과 같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攻め面(sememen)’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즉 명사화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6. 井上優,金河守「名詞述語の動詞性・形容詞性に関する覚え書き—日本語と韓国語の場合—」,筑波大学「東西言語文化の類型」特別プロジェクト研究報告書,平成10年度Ⅱ, 1998.3.25.
7. 같은 책, 469면.
8. 같은 책.
9. 양국의 차이는 이런 구조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번역했을 때 발생한 가능성도 있다. 사실 씨름 등 한국 고유의 무도에 있어서 기술 용어는 그리 설명적인 것이 아니다.
10. 『유소년검도지도요령(幼少年劍道指導要領)』, 이호안 역, 1995년, 역자의 말.
11. GAISF의 총회(2006년4월8일)에서 Kendo(劍道)의 등록신청이 승인되었다.

표 검도지도서에 보이는 기술용어의 비교

幼少年剣道指導要領	剣道入門	검도	幼少年剣道指導要領
基本動作	기본기	기본동적	기본동작
姿勢			자세
構え	겨눔	겨눔법	대세
目付		눈살핌	눈길
足さばき	발 움직임	발놀림	발 놀림
すぶり	공간혼자치기	후리기 연습/ 공간치기	후리기
掛け声			기부림/발성
間合い		간격	간격
切り返し	되돌려 치기	연격	연격
体当たり		몸받음	몸 부딪침
鍔せり合い		코둥이싸움	코둥이 싸움
残心			존심
对人的技能	응용기	대인적 기능	대인적 기능
しかけていく技	공격기	공격기	걸고 들어가는 기술
一本打ち		공격에 대한 상대의 변화에 대응한 타격	한본치기의 기술
払い技	헤쳐나가기	털어내 기술	헤쳐 나가는 기술
二・三段の技	2.3단의 기	2.3단의 연속기술	이,삼단치기 기술
出ばな技	나오는기	선제기술	나올 때 치기 기술
引き技		물러나면서의 공격기술	물러나면 치기 기술
かつぎ技	어깨메어치기	메어치기술	어깨 메어치기 기술
捲き技		감기기술	감아 돌려치기 기술
片手技	한손치기	한손기술	한손치기 기술
上段技	상단의 기	상단기술	상단의 기술
応じていく技	응용기	응용기	받아 들어가는 기술
すり上げ技	스쳐올려치기	스쳐올려치기기술	스쳐올려치기 기술
返し技	돌려치기	되돌려치기기술	되돌려치기 기술
打ち落とし技	바다떨어뜨려치기	받아떨어뜨려치기기술	받아떨어뜨려치기 기술
抜き技	비켜치기	피하면서 공격하기기술	비켜치기 기술
応じ技		대응기술	바아치기 기술